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2015 년 9 월 6 일

감사합니다. 2 달반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가운데에서살다가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갖게 되었던 긴 휴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아량으로 가능했던 휴식의 시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9 월 마지막 주일에 안식월 보고하는 시간에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9 월 27 일 주일 오후 1 시예배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휴가를 가셨습니다. 두로지방으로 가셨다고 하였는데, 그 곳은 지금의 남부 레바논 해변가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50 마일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 도보로 가셨을 겁니다. 이틀을, 여유있게 삼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머무실 계획이었을 겁니다. 말씀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고 싶었습니다.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번 안식월동안에, 저는 혼자 비행기로 7 시간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30 일간 지냈습니다. 정확히 6 월 15 일에 떠나, 7 월 15 일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같이 갈처지가 안되어서, 혼자 떠나게 되었지요. 이번 해가, 저희들 결혼 한 지 30 년이 된 해인데, 결과적으로, 결혼 30 주년 기념으로 유럽 여행 30 일을 저 혼자 하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혼자 먼 곳에 가서 여행해 보니까, 좀외로웠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같이 좋아 할 사람이 없고, 대화 할 상대가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신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하하하.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눈치 보지않고 맘이 편했습니다. 편하게 짧은 바지에 티셔츠 바람으로 다니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녔습니다. 세상을보고, 사람들을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홀로 여행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였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런데 쉬고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 이방여인입니다.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자기시간, 혼자있는시간을 갖고 싶으셨는데..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하는 사역을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는데, 방해를 받게되었습니다. 일찍이 계획하였던 휴가기간에, 혼자있고 싶었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재 정비하는 자신만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치유의 사역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휴가 중에 하신 사역을 소개하면서, 휴가 중이라도, 타향에서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사역, 치유 사역은 해야하는 것을 배웠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도 정해진시간, 정해진지역에서, 정해진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열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거하는 중에, 스위스에 갔었습니다. 케이블 카를 타고 눈으로 덮힌 높은 스위스 산을 오르고, 그 곳에서 두시간을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산행 했습니다. 산행이 끝난 후, 동네에 내려와서, 선 크림을 사러 조그만 길가 가게에 들어 갔습니다. 손님이 없어, 곧, 크림을 사고 가게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시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깜짝 놀랐지요. 누가 스위스에서 나를 알아 보나?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렇게 만난 그 분과 저는 그 날 오후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문제, 사업문제, 너무 무거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혼자 여행을 떠나 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날 저는

열심히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 서너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대화를했습니다. 사역은 휴식 중에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며는, 예수님께서서는 휴가를 마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 오셨습니다. 사역의 본부가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고향에 돌아 와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방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서든지 일어난다고 밝혀 보여 준 것입니다.

9 월 1 일 저는 웨어필드 교회에 돌아 왔습니다. 교회 사무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앤 레건 자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레건 자매가, 제게 8 월 31 일 바로 전날에 교회를 찾아와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한 사람의 메모를 건네 주었습니다.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메모였습니다. 그 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 시 30 분 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건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는, 마약 불법 판매로 감옥에서 4 년을 보내고, 3 주 전에 형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니, 갈 곳이 없습니다. 부인은 떠나고.. 잠 잘 곳이 없습니다. 샤워 할 곳이 없습니다. 딸에게 선물한 자전거를 딸이 갖다 주어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다행이 9 월 2 일부터 페인팅하는 일을 찾았는데, 일할 때 신을 신발과 옷이 필요 했습니다. 브리짓 포트 교회 연합회와 연결해 주어서, 재정 도움을 받아, 구입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서너 시간 후에, 스트래트포드에 있는 월마트를 자전거를 타고 찾아 가면서 전화를 6 번 넘게 했습니다. 월마트를 못 찾겠다는 거지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 형제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감옥생활하고 나와서 익숙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월마트에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하고, 저는 차를 돌려 그에게로 갔습니다. 만나서 같이 샵핑을하는데, 연신 불안 해 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같이 찾아 구입을하고, 자전거를 차에 싣게 하고 브리짓포트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타지에서나 고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열린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사역은 교회에 국한되어있지는 않습니까? 치유의 사역은 교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 “더러운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가는 곳 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깨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리고 유럽에도. 시리아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브리짓포트에는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재활하기가 힘듭니다. 정체성이 혼란하여 힘들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이웃은 집안에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면 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Do good. 내 주변의 이웃들을, 누구이든지 간에, 어린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고한 것 처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치유, 화해, 평화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시는 사랑,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 사업체로 갑니다. 이 노래 부르며 나아갑니다. “I gonna love so God can use me anywhere Lord anytime. I gonna sing so God can use me anywhere Lord anytime. I gonna serve so God can use me anywhere Lord anytime.”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멘.

이 아침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차게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